

행복 담은 전주 완주 시내버스

60년만에 새로운 노선 달린다

1958년 남부시장서 동산동까지 운행 후... 20일부터 생활할 맞춰 개편
전주-팔달로 중심 1개 축에서 6개 축으로 노선 다양화
완주-이서·삼례지역 시간간격 도입 운행 효율성 강화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이 오는 20일부터 시민들의 교통수요와 이동패턴 등 생활환경에 맞춰 개편된다.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지난 1958년 12월 26일 남부시장에서 동산동까지 최초의 시내버스가 운행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성일 완주군수는 16일 전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그리고 불편한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개편해 전주 시민들과 완주 군민들의 새롭고 희망찬 미래를 열겠다고 천명했다. 이번 노선개편은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도시공간구조 팽창에 맞춰 기존 팔달로 단일축으로 운행된 버스노선이 남북3축·동서3축 등 6개축으로 다양화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실제 시민들의 이동수요를 분석해 통행시간을 단축한 것이 핵심이다. 또, 완주군의 경우 이서·삼례지역에 시간간격을 도입해 시내버스 운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완주군 읍·면 지역간 연계성을 강화했다. 먼저, 시는 기존 팔달로 단일축에서 △동산동~(팔달로)~한옥마을, 동산동~(동부대로)~아중리, 혁신도시~서부신시가지~중앙동의 동서3축과 △전주역~(백제대로)~평화동, △송천동~서부신시가지~평화동, △평화동~한옥마을~우아동의 남북3축을 중심으로 다양한 간선체계를 구축했다. 대표적으로, 신설되는 100번 시내버스 노선의 경우, 백제대로를 따라 전주역에서 평화동까지를 최단경로로 연결시켜주는 노선이다. 또한 시는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실

제 시민들의 이동수요를 분석하고, 시내버스를 이용해도 승용차를 이용할 때와 이동시간이 큰 차이가 없도록 통행시간을 대폭 단축한 노선체계를 구축했다. 일례로, 혁신도시에서 전북 대학교까지 시내버스를 타고 가려면 기존 165번 버스 이용시 70분 정도 소요됐지만, 7-1번 신설버스를 이용하면 승용차를 이용할 때와 비슷한 20분 정도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완주군의 경우 이서·삼례지역 1단계 시간간격 도입을 통해 운행 효율성과 지역간 연계성이 강화됐다. 이서 지역은 전주대, 삼례지역은 삼례터미널을 각각 환승거점으로, 각 마을이 지선노선으로 연결된다. 또, 그동안 연결되지 못했던 이서와 삼례, 삼례와 고산 구간 등이 직접 연결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시내버스 노선의 전면개편은 오랜 세월의 관습과 관행을 바꾸는 일이다. 그만큼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전주·완주 시대를 열어가는 희망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한다"라며 "앞으로 완주군과 손잡고 더 좋은 서비스로 불편함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재 기자

대형센터 등 시내버스 주요 승강장에 배치하고, 주요노선과 환승을 안내하는 등 시민들의 버스탑승을 도울 계획이다. 노선개편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시행 첫날에는 관내 20여개 주요 승강장에 공무원 500명을 배치해 달라진 노선에 대한 안내와 홍보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이번 전주시와 완주군이 힘을 합쳐 시내버스 노선을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개편해낸 것은 전주 완주 두 지역주민의 공동체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노선개편은 완주지역의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시내버스 노선의 전면개편은 오랜 세월의 관습과 관행을 바꾸는 일이다. 그만큼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전주·완주 시대를 열어가는 희망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한다"라며 "앞으로 완주군과 손잡고 더 좋은 서비스로 불편함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파티마신협은 16일 우전성당에서 '엄마의 밥상' 성금 1,000만원을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전달했다.

“밥 굶는 아이들을 위해 써주세요”

전주파티마신협, 엄마의 밥상 성금 기탁

전주파티마신협(이사장 유병환)이 아침밥을 굶는 전주시 소외계층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을 함께 차리기로 했다. 전주파티마신협은 16일 우전성당에서 유병환 이사장과 이석계 전북신협 협의회장 등 조합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지난 1년간의 성공적인 경영을 자

축하며 전주시 '엄마의 밥상'에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유병환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어른들은 우리의 아이들을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 신협이 작게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다"고 밝혔으며, 전주시 관계자는 "후원해주신 전주파티마신협 관계자분들의 고귀한 뜻을 귀하게 여기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기록물 기증캠페인 연중 실시

전주시가 도시의 역사와 시민 생활 상 등이 담긴 가치 있는 전주 관련 기록물을 수집해 전주의 소중한 기록자산으로 보존·관리키로 했다. 시는 전주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환경 등 오랜 시간 켜켜이 쌓아온 전주만의 인문학적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가치 있는 전주 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해 시민 개인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기록물 기증캠페인을 연중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증캠페인은 전주 관련 자료의 인문학적 집대성과 체계적 정리 목적을 추진하고 있는 '전주정신의 숲'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주 시민들의 삶이 담긴 기록물과 전주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 기증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기증 대상 유형은 일기·편지·수첩 등의 문서와 향토지·회귀도서·조사연구서 등의 책자, 사진·필름·앨범 등 시각각 자료, 기념품·책자·그림 등 박물관, 전주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모든 형태의 기록물이 수집 대상이다. 특히 시는 올 한해 중요 민간기록물 수집과 더불어, 지역 사회와 시민들과의 교감을 통해 우리 일상에서 묻히고 드러나지 않은 전주의 기록을 찾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김영재 기자

'알선수재' 혐의 순창군수 부인 항소심도 '무죄'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황소주 순창군수의 부인 권모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관계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권씨는 지난 2013년 4월 지인으로 부터 "A씨의 아들을 순창군청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민근 기자

기록물과 전주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 기증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기증 대상 유형은 일기·편지·수첩 등의 문서와 향토지·회귀도서·조사연구서 등의 책자, 사진·필름·앨범 등 시각각 자료, 기념품·책자·그림 등 박물관, 전주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모든 형태의 기록물이 수집 대상이다. 특히 시는 올 한해 중요 민간기록물 수집과 더불어, 지역 사회와 시민들과의 교감을 통해 우리 일상에서 묻히고 드러나지 않은 전주의 기록을 찾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김영재 기자

편리한 교통복지 실현 시·군 상생협력 확대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 의미는?

60년 만의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버스를 단순히 이동수단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더 편하면서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특히 시·군간 상생협력은 물론 양 주민들이 공동체 회복과 발전을 꾀할 수 있는 활동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들 생활환경에 맞춘 시내버스 노선개편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지난 1958년 현 노선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이며 무엇보다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주민들의 이동 편의에 초점을 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내버스 최초 노선인 팔달로(동산동~남부시장) 중심의 획일적인 버스노선 탓에 불편했던 문제를 유동인구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의 실제 이동패턴에 맞췄다. 주요 노선은 팔달로 중심의 1개 간선축을 동서1·2·3축과 남북1·2·3축 등 6개축으로 확대했다. 우선, 동서1축은 팔달로를 따라 동산동~전북대~한옥마을, 동서2축의 경우 동부대로를 중심으로 동산동~송천동~호성동~아중리, 동서3축은 북고개길과 서원로를 오가는 혁신도시~효자동~중화산동~중앙동으로 노선을 설정했다. 남북1축은 백제로를 따라 전주역~서신동~중화산동~평화동, 남북2축의 경우 홍산로와 안행로와 신덕마을, 완주군 해전리동~서신동~효자동~삼천동~평화동, 남북3축은 장승백리로와 아중로

를 남나드는 평화동~중앙동~우아동 노선이다. 간선축을 중심으로 순환1축(혁신도시~전북대~중앙동~효자동~혁신도시), 순환2축(전북대~인후동~중앙동~전북대) 노선을 만들고, 희망노선1축(동산동~송천동~호성동~우아동~인후동), 희망노선2축(평화동~삼천동~효자동~서신동~송천동)을 갖춰 이동 편의성을 높였다. 시간간격 도입을 통해 완주지역 내에서 이용하면서도 전주를 경유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완주지역 내 연계노선인 삼례~이서, 삼례~봉동~고산이 신설되고, 시내버스 도입 이후 처음으로 안행로와 신덕마을, 완주군 해전리 등에 버스노선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보다 편하고, 보다 빠른 교통복지 실현
이번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도시의 공간구조의 변화와 주민들의 생활패턴 변화에 맞게 개편된 만큼 통행시간(이동시간) 단축, 노선의 효율성 향상 등 교통복지 실현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 혁신도시와 전북대를 오가기 위해 서는 종전의 경우 70분이 소요됐으나 최단거리 노선이 신설되면서 20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됐다. 서부신시가지~송천동 구간 역시 현재 50분이 소요되지만, 노선 신설 후에는 30분으로 단축된다. 또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토대로 실제 교통수요가 많은 송천동~동산동, 혁신도시~동산동~금암동~인후동, 송천동~하가지구~서신동~효자동 등 연결노선을 구축했다. 대중교통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혁신도시, 서부신시가지와 전주 주요방면을 연결한 간선버스 노선을 개설하고, 하가지구 역시 시내버스 운행횟수가 현행 115회 보다 1.5배 많은 167회로 늘렸다. /김영재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